

은유와 환유의 언어학적 기초

김 욱 동

수사학 전통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있는 은유와 환유는 그 동안 철학에서 큰 자양분을 얻으며 성장해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뒤를 이어 수많은 서구 철학자들이 은유와 환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철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은유와 환유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미련을 차마 떨구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수사학과 의 갈등과 긴장은 곧 서구 철학이 발전해오는 데 원동력의 구실을 맡았다고 하여도 그렇게 틀리지 않는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빼놓고서는 수사학이 관심을 받지 않은 시대는 아마 없을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분석철학자들이 은유와 환유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존 로크의 말대로 비유는 아름다운 여성과 같아서 그 유혹을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매력을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은유와 환유는 현대 언어학에 이르러 좀더 이론적 뒷받침을 받는다. 철학이 주로 인식론적 관점에서 은유와 환유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언어학은 이 두 비유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쪽에 관심을 쏟았다. 특히 언어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하여 은유와 환유의 신비를 벗기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언어학 가운데에서도 통사론과 화용론

이 은유와 환유 이론에 끼친 영향은 무척 크다 할 것이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지언어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그야말로 눈부신 연구 성과를 보였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은유와 환유의 이론이라는 집은 언어학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언어학적 기초를 밝히는 일은 은유와 환유의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는 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1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변형-생성 문법학자 노엄 촘스키는 그 동안 언어의 심층 구조를 밝히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현대 언어학에 가히 혁명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통사 이론의 양상』(1965)에서 그는 이른바 '선택 제약'의 관점에서 은유를 설명한다. 선택 제약이란 한 어휘 항목이 다른 어휘 항목과 결합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규칙을 말한다. 한 문장에서 명사는 통사 자질을 가지고 있는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와의 관계에 따른 선택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 주어는 아무 낱말이나 술어로 삼을 수 없고 오직 여러 낱말 가운데에서 특정한 것만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그 돌이 울었다”는 통사 규칙을 위반한 문장이다. “그 돌이 유난히 빛났다”라든지 “그 돌이 단단해 보였다”라고 말하면 몰라도 “돌이 울었다”라는 문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돌’이라는 무생물 주어는 ‘울었다’라는 정감을 나타내는 동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사 규칙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형용사와 명사, 부사와 동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가령 “아름다운 슬픔”이라든가 “찬란하게 서 있다”라는 말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

촘스키는 선택 제약을 위반한 본보기로 “색깔 없는 푸른 관념이 맹렬하게 잠을 잔다”라는 문장을 한 예로 든다.¹⁾ 추상적 관념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푸른 관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관념의 색이 푸르다고 해놓고서 ‘색깔 없는’이라는 말로 관념이라는 명사를 꾸미게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관념이〔……〕잠을 잔다”라는 표현도 걸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잠은 추상적 관념에는 어울리지 않고 오직 생물체만이 할 수 있는 생리적 현상이다. 관념이 잠을 잔다는 표현도 모자라 “맹렬하게 잠을 잔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더 말이 되지 않는다. ‘깊이’나 ‘곤하게’라는 부사라면 몰라도 ‘맹렬하게’라는 부사는 ‘잠을 잔다’는 행위를 꾸며주는 수식어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츨스키가 말하는 선택 제약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히 모더니즘의 대부로 일컫는 T. S. 엘리엇의 「J. 엘프리트 프루프록의 연가」(1917)의 한 구절을 예로 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리창문에 등을 부벼대는 노란 안개
유리창문에 주둥이를 부벼대는 노란 연기
물이 빠진 풀장 위에 머물다가
저녁의 모퉁이를 혀로 핥고
그 등에 굴뚝에서 떨어지는 검댕이를 떨어뜨리고
테라스를 미끄러져나와 갑자기 뛰어오른 뒤
부드러운 10월의 밤인 것을 알고는
집 주위에서 한번 몸을 구부리고 잠에 들었다²⁾

노란 안개가 유리창문에 등을 부벼댄다거나 노란 연기가 또한 유리창문에 주둥이를 부벼댄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등’이나 ‘주둥이’라는 낱말은 동물을 기술하는 데에만 해당할 뿐 안개나 연기 같은 무생물에는

1) 이 점에 대해서는 Noam Chomsky, *Aspects of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1965), pp. 148~49를 보라.

2) T. S. Eliot, *Collected Poems of T. S.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74), p. 13.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행에서도 노란 안개나 연기가 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맞지 않는데 그 혀로 “저녁의 모퉁이를 핥았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선택 제약 위반은 후반부 행에 이르러 좀더 뚜렷이 드러난다. 안개와 연기는 테라스를 지나가는가 하면 짐승처럼 갑자기 뛰어오르기도 한다. 집 주위에서 몸을 웅크리는가 하면 이번에는 잠을 자기도 한다. 이 인용문에서 독자들은 안개나 연기보다는 오히려 고양이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선택 제약의 위반은 추상적 개념의 자질을 무생물의 자질로 선택할 때 일어나기도 한다. 가령 에밀리 디킨슨의 한 작품은 이러한 경우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내 인생은—장전된 총
구석에 서 있던—어느 날
마침내 주인이 지나가다—나를 알아보고
나를 데려갔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국왕의 숲을 헤매면서—
사슴 사냥을 하고 있네—
내가 주인을 위하여 말할 때마다—
산들이 금방 대답하네—³⁾

이 작품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탄알을 장전한 총’에 빗대는 것이나, 삶이 ‘구석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또는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데려갔다’고 말하는 것이나 하나같이 선택 제약을 위반한 것이다. 논리적으로

3) Emily Dickinson, *The Complete Poems of Emily Dickinson*, ed. Thomas H. Johnson (London: Faber and Faber, 1970), p. 369.

보면 인간의 삶은 장전한 총이 될 수 없을뿐더러 구석에 서 있거나 다른 사람이 데려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둘째 연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무생물인 산이 ‘대답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춤스기가 말하는 선택 제약은 한국 시단에 처음으로 모더니즘 전통을 세운 정지용(鄭芝溶)의 작품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다는 뿔뿔이
달어날라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같이
재재발렸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珊瑚)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⁴⁾

「바다 9」라는 작품의 일부다. 정지용은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을 모두 아홉 편이나 썼다. 이양하(李楊河)는 일찍이 정지용을 두고 “말의 비밀을 알고 말을 휘잡아 조종하고 구사하는 데 놀라운 천재를 가진 시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작품을 보면 이양하의 지적이 그렇게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마 정지용처럼 언어에 대하여 남다른 자의식을 느낀 시인도 아마 우리 시사(詩史)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일찍이 외국 문학을 공부한 탓에 모국어에 대한 자의식이 남달랐을 것이다.

4) 『정지용 전집』 1(서울: 민음사, 1988), p. 260.

츨스키의 통사 이론에서 보면 “바다는〔……〕달아날라고 했다”는 문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발과 다리가 없는 무생물인 바다가 ‘달아나려고’ 한다는 것은 도무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달아난다는 것은 더더욱 걸맞지 않는다. 이렇게 앞뒤가 서로 걸맞지 않기는 “바다는〔……〕재채발렸다”라는 구절도 마찬가지다. ‘재발렸다’는 말로도 모자라서 ‘재’자를 되풀이하여 ‘재재발렸다’라고 말한다. 또한 시인은 바다에게 꼬리가 있을 리 없는데도 “꼬리가 이루/잡히지 않았다”고 말한다. 발톱이 회다는 것도, 바다에 생채기(작은 상처)가 생겼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런가 하면 “푸른 도마뱀때갈이”도 선택 제약을 어긴 구절이다. 도마뱀을 꾸미는 수식어로서는 ‘푸른’이라는 형용사는 아무래도 걸맞지 않는다. 청개구리와는 달라서 도마뱀은 대개 갈색을 띠고 있는 까닭이다. 넷째 연의 ‘슬픈 생채기’에서도 ‘슬픈’이라는 말도 생채기를 꾸며주는 수식어로서 적절하지 않다.

논리성에 따라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츨스키의 입장에서 보면 정지용의 작품은 선택 제약을 위반한다. 한 낱말이 문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테두리를 벗어남으로써 통사 규칙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정지용의 작품에서 바다는 ‘무생물’과 ‘액체’라는 자질을 가지고 있고, 달아난다는 동사는 ‘동작’과 ‘역동성’과 ‘생물’에만 적용된다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시인은 무생물과 액체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바다에 동작과 역동성의 자질을 부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선택 제약을 깨뜨린다.

한편 통사론뿐만 아니라 화용론도 은유 이론에서 한몫을 톡톡히 맡는다. 화용론자 폴 그라이스는 대화 격률 이론에서 은유를 언급한다. 이제 이 분야에서 고전이 되다시피 한 논문 「논리와 담화」(1967)에서 그는 로만 야콥슨의 기호학적 모델과는 전혀 다른 추론적 의사 소통 모델을 내세운다. 모든 의사 소통을 메시지로 기호화하고 그 기호를 해독하는 것으로 보는 기호학적 모델에서와는 달리, 추론적 모델에서 의사 소통은 어디까지나 추론적 증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두고 그라이스는 '협조의 원리'라고 부른다. 이 원칙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걸맞는 방식으로 담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라이스는 협조의 원리를 크게 1) 양의 격률, 2) 질의 격률, 3) 관계의 격률, 그리고 4) 방법의 격률 네 가지로 나눈다. 양의 격률은 정보의 양과 관련한 것으로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목적에 꼭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주거나 이와는 반대로 필요한 것보다 적게 정보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짓는다. 질의 격률은 대화에서 절대로 옳지 않다고 믿고 있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되며 오직 진실된 것만을 말할 것을 규정짓는다. 또한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적합성과 연관성을 강조하는 관계의 격률은 오직 대화와 직접 관련된 것만을 말하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방법의 격률에서는 무엇보다도 명료성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모호하거나 애매한 말을 피하고 간결성과 질서를 추구하려고 한다.⁵⁾

물론 이러한 의사 소통의 격률은 그라이스도 밝히고 있듯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규범에 지나지 않을 뿐 모든 상황에서 엄격히 지켜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규칙은 심지어 법정에서 벌어지는 대화에서도 지켜지기 쉽지 않다. 또한 협조 원리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이다. 가령 명료성을 강조하는 방법의 원리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비협조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한 화용론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라가시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모호하고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대화에 협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라이스가 말하는 네 가지 격률은 그 비중이 똑같지 않다.

5) 이 점에 대해서는 H. Paul Grice, "Logic and Conversation," in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ed. Peter Cole and Jerry L. Morgan (New York: Academic Press, 1975), pp. 41~58을 보라.

질의 격률은 다른 격률과 비교하여 좀더 도덕적 가치에 무게를 싣는다. 양이나 관계 또는 방법 같은 다른 격률을 위반하면 기껏해야 분별이 없거나 예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되지만, 만약 질의 격률을 위반한다면 도덕적 죄를 범하였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적합성 이론을 주장하는 화용론자들이 지적하듯이 협조의 원리를 지나치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의사 소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준다. 그러나 한 대화가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협조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이 원리는 어디까지나 협조적 대화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수단을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라이스는 은유가 협조의 원리 가운데에서 질의 격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한 대상이나 개념을 다른 어떤 것에 빗대어 말하는 은유는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라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엇처럼 “유리창문에 등을 부벼대는 노란 안개/유리창문에 주둥이를 부벼대는 노란 연기”라고 말한다든지, 정지용처럼 “바다는 뿔뿔이/달어날라고 했다”라거나 “푸른 도마뱀떼같이/재재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진실된 것만을 말하도록 규정짓는 질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은유는 질의 격률을 어길뿐더러 양태의 격률을 어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은유는 정보를 간접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분명하게 전달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라이스의 이론은 적어도 은유를 표준 일상어에서 벗어난 일탈로 본다는 점에서 화행론 이론가 존 R. 설의 이론과 비슷하다. 설은 ‘날말이나 문장의 의미’와 화자의 발화 의미를 엄격히 구분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그 동안 문장의 의미를 축어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로 나누어온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점에 대하여 설은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한 날말이나 표현이나 문장의 은유적 의미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늘 날말이나 표현이나 문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와 다른 방식으로 화자가 발화를 통하여 의미하려고 하는 바를 말하고 있다”고 밝힌다. 한마디로 축어적 발화에서

는 화자의 의미와 문장의 의미가 동일하지만 은유에서는 언제나 화자의 발화 의미와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듯 설은 화용론자답게 무엇보다도 화자의 의도에 무게를 싣는다. 더 나아가 설은 축어적 해석이 “아주 큰 결점이 있다”고 판명될 때 비로소 은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⁶⁾

츠스키, 그라이스, 설 같은 언어학자들에게 은유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언어 규칙에서 벗어난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은유가 작용하는 매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면서도 그들은 지나치게 통사 규칙이나 의사 소통의 원칙에 얽매어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들의 언어 이론은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바로 이 점에서 언어학자들은 문학가들과는 크게 다르다. 은유는 정상 언어에서 일탈한 비정상적인 언어이거나 정상 언어에 기생하는 부차적 언어가 아니다. 오히려 은유야말로 정상 언어요 숙주(宿主)와 같은 중심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츠스키와 그라이스 같은 몇몇 언어학자들의 이론은 여러모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떠올리게 한다. 언어를 논리·수사·시의 세 범주로 나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범주가 저마다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즉 논리는 명확성을, 수사는 설득을, 그리고 시는 모방을 각각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은유를 비롯한 비유는 일상어로부터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부차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그의 이론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에 따르면 장식적이고 부가적인 은유는 특수한 방법으로 특수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은유를 너무 많이 쓰면 일상어를 지나치게 시적인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리학을 가르칠 때 어느 누구도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언어와 실재, 말과 사물, 형식과 내용은 서로 다르다고 보는 점

6) 이 점에 대해서는 John R. Searle, “Metaphor,”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2nd ed., ed. A. P. Martini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408~29를 보라.

에서 그는 언어에 대한 이원론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은유란 좋게 말하면 미심쩍은 언어요, 나쁘게 말하면 피하여야 할 언어의 악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인지화용론 분야에서 부쩍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적합성 이론’에서 은유는 이보다 훨씬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축어적 해석과 은유적 해석을 뚜렷이 구분해왔다. 은유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축어적 해석을 그 전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축어적 해석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댄 스퍼버와 데이드르 윌슨 같은 적합성 이론가들은 축어적 해석과 은유적 해석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다. 축어성과 은유성의 구별은 이항 대립보다는 오히려 연속체의 관점에서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의사 소통에서 화자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은 최적의 적합성이고, 이러한 최적의 적합성은 반드시 축어적 발화로써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적의 적합성을 얻을 수만 있다면 축어든 비유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은 축어적 발화가 흔히 최적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정보를 처리하여 얻는 소득이 그것을 처리하는 데 들이는 노력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축어적 발화는 최적의 적합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런데 최적의 적합성은 ‘적합성 원리’를 따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적합성 원리란 “모든 직시적(直示的) 의사 소통 행위에는 그 자체에 최적의 적합성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원리를 말한다. 적합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은 ‘맥락 효과’와 ‘처리 노력’이다. 이 두 개념은 말하자면 적합성 이론의 지붕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다. 이 이론을 처음 펼친 스퍼버와 윌슨에 따르면 “맥락 효과는 적합성이 지녀야 할 필요조건이며,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이 맥락 효과가 크면 클수록 적합성도 그만큼 커진다.” 그런데 이러한 적합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두번째 요인은 맥락 효과를 얻기 위하여 들이는 처리 노력이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처리 노력이 크면 클수록 적합성의 정도는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밝힌다.⁷⁾ 달리 말한다면 상정 내용이 한 맥락 안에서 갖는 적합성의 정도는 그 맥락 효과의 정도와 비례하고 필요한 처리 노력의 정도와는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 달 수입이 얼마냐고 물을 때에 몇백 몇십 원 단위까지 정확히 말할 필요는 없고 대충 몇십만 원 또는 몇만 원 정도에서 뭉뚱그려 말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시간을 물을 때 대충 다섯시라고 하면 되지 굳이 다섯시 일분이니 다섯시 이분이니 하고 말할 필요는 없다. 우수리 단위까지 정확히 말하면 언뜻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노력에 비하여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서 최적의 적합성을 얻는 데에는 어느 진술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냐 비경제적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적합성 원칙은 최소의 노력이나 자재로써 최대의 효과를 노리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경제 원칙에 빗낼 수 있을 것이다.

적합성 이론가들은 최적의 적합성을 얻기 위하여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은유를 보려고 한다. 은유에서나 대략적 표현에서나 발화의 명제 형식과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두 형식은 동일하지 않고 몇몇 논리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을 뿐이다. 스퍼버와 윌슨은 서양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 방은 돼지우리다”라는 표현을 한 예로 든다. 이 은유는 그 방이 매우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뜻을 지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더러움과 지저분함의 이미지 같은 것도 함께 지닌다. 만약 이 표현을 다른 축어적 표현으로 바꾸어놓았다면 그 의미에서 손실이 있게 마련이다. 스퍼버와 윌슨은 이렇게 은유도 축어적 표현에 못지않게 최적의 적합성을 얻는 데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힌다.

7) 이 점에 대해서는 Dan Sperber and Deidre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1986), pp. 231~37을 보라.

은유를 비롯한 몇몇 수사적 표현(과장법 · 환유 · 제유)은 순전히 일반적 차원의 언어 용법을 창조적으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화자는 최적의 적합성을 탐색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좀더 충실하게 또는 덜 충실하게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축어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은유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은유를 위하여 어떤 특별한 해석 능력이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은유는 언어적 의사 소통에서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몇몇 능력과 절차의 자연스런 결과일 따름이다.⁸⁾

은유와 관련하여 스피버와 월슨의 적합성 이론은 여러모로 주목받을 만하다. 무엇보다도 은유를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종래의 몇몇 이론과는 크게 다르다. 가령 축어적 표현이 질의 격률을 깨뜨릴 때 은유가 생기는 것으로 보는 폴 그라이스의 이론이나, 축어적 표현이 '아주 큰 결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때 은유가 생긴다고 주장한 존 설의 이론과 비교할 때 스피버와 월슨의 그것은 훨씬 더 설득력을 지닌다. 이들 이론가와는 달리 축어와 비유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도 스피버와 월슨이 이룩한 큰 성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적합성을 추구하려는 나머지 은유가 지니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은유는 환유나 제유를 비롯한 다른 비유법과 그 성격과 본질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은유와 비교해볼 때 환유는 그 동안 서자(庶子) 취급을 받아온 것과 크

8) 앞의 책, p. 237.

게 다름없다. '비유의 왕자'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아온 은유와는 달리, 환유는 상대적으로 이론가들로부터 여간 홀대를 받아오지 않았다. 가령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이 함께 쓴 책 『비유로 산다』(1980)만 보아도 은유에 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도 막상 환유에 대해서는 겨우 한 장(章)밖에는 할애하지 않는다. 실제로 은유에 관한 논문이나 저서는 많아도 환유에 대한 논문이나 저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환유가 제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특히 인지언어학자들은 은유 쪽보다는 오히려 환유 쪽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인간의 언어·사고·태도, 그리고 행위의 구조를 밝혀내는 데 은유보다는 환유가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은유보다는 환유가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쓰인다. 가령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머리를 꺾었다”라고 하지 “머리카락을 꺾었다”라고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라디오를 듣는다”라고는 하여도 “라디오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몇몇 인지학자들이 환유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인지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환유란 단순히 언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테두리를 벗어나 좀더 인식론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결론짓는다.⁹⁾

일찍이 환유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언어학자로는 폴 M. 포스털을 꼽을 만하다. 「전방조용적 섬」(1969)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이른바 통사적 ‘삭제 규칙’에서 환유의 특성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축어적 문장에서 어떤 낱말을 삭제할 때 환유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¹⁰⁾ 예를 들어 “그는 책상을 닦았다”라는 환유는 “그는 책상 위에 있는 먼지를 닦았다”라는 문장에서 ‘먼지’라는 낱말을 삭제한 것이다. “프루스트의 작품은 읽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문장에서 ‘작품’이라는 낱말을 삭제한 것이 “프루스트는 읽기가

9) 이 점에 대해서는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 36을 보라.

10) 이 점에 대해서는 Paul M. Postal, “Anaphoric Islands,” *CLS* 5, 1969, pp. 209~39를 보라.

불가능하다”라는 환유다. 마찬가지로 “기압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환유는 “기압계에 들어 있는 수은주가 올라갔다”라는 문장에서 ‘수은주’를 삭제한 것이다.

잘 알려진 책 『여성, 불, 그리고 위험한 것들』(1987)에서 조지 레이코프는 환유가 일상어에 널리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나 독특한 원리에 따라 작용하므로 그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략 다섯 가지 관점에서 그는 환유가 작용하는 원리를 밝힌다.

1)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해하여야 할 ‘목표’ 개념 A가 있다.

2) A와 다른 개념 B를 포함하는 개념 구조가 있다.

3) B는 A의 일부이거나 그 개념 구조 안에서 A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전형적으로 개념 구조 안에서 B를 선택하면 A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A와 비교해볼 때 B는 이해하거나 기억하거나 인식하는 데 더 쉽거나 주어진 맥락에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5) 환유 모델은 A와 B가 한 개념 구조 안에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관한 모형이다. 즉 그 관계는 B로부터 A의 함수로 명시된다.¹¹⁾

환유 모델이야말로 가장 ‘이상화된 인지 모델’이라고 밝히는 레이코프는 풍부한 개념 체계에는 추론을 하거나 판단을 내릴 목적으로 범주의 한 구성 요소나 하위 범주가 범주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환유 모델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환유 모델로 그는 1) 사회적 고정관념, 2) 전형적인 사례, 3) 이상적인 것, 4) 모범적인 것, 5) 생성원(生成源), 6) 하위 모델, 7) 두드러진 사례 등 모두 일곱 가지를 제시한다.

11) George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 78.

‘사회적 고정관념’이란 사회 인습이나 전통 때문에 굳어진 관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성 위주의 유교 질서가 아직 힘을 떨치고 있는 동양 문화권에서 여성들은 흔히 집 안에서 살림이나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기 일쑤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기혼 여성을 두고 ‘집사람’이니 ‘안식구’니 ‘내자(內子)’니 심지어는 ‘부엌데기’니 하는 환유가 자주 쓰인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사회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여성이 범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고 위의 환유들이 하위 범주에 지나지 않는데도 사회 구성원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러한 환유들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사회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박히게 되면 사회적 고정관념은 한동안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바뀌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파블로프의 개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그런가 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쉽게 달라지는 것도,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자주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사회적 고정관념이다.

‘전형적인 사례’란 전형이 되는 실례가 범주 전체를 나타내는 환유를 가리킨다. 가령 사과와 배가 전형적인 과일이라면 무와 배추는 전형적인 채소다. 물론 문화에 따라서 그 전형이 달라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에서는 오렌지가 과일 전체를 대표하는 과일이 될 수 있다. 한편 열대 지방에서라면 아마 사과나 배 또는 오렌지보다는 오히려 바나나와 파인에 플이 전형적인 과일로 대접받을 것이다. ‘사회적 고정관념’과는 달리 ‘전형적 사례’는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이어서 좀처럼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을뿐더러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상적인 것’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높은 이상으로 삼고 있는 실례를 말한다. 가령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란 흔히 집안 식구들을 잘 부양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충실하고 자식들을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사람으로 꼽힌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못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힘이 세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는 이러한 이상적인 사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

다. 남편을 한 예로 들었지만 이 밖에도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교사, 이상적인 친구, 이상적인 상사 따위 얼마든지 그 예를 들 수 있다. 환유에서는 흔히 이러한 이상적인 것을 통하여 범주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모범적인 것’이란 남의 모범이나 본보기가 되는 것을 범주로 삼는 환유를 말한다. 언뜻 이상적인 것과 모범적인 것 사이에는 이렇다 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좀더 꼼꼼히 따져보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이상적인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모범적이지는 않고, 이와는 반대로 모범적인 것이라고 하여 언제나 이상적이지는 않다. ‘베스트 텐’이니 ‘명예의 홀’이니 ‘기네스 북’ 같은 제도가 바로 모범적인 예에 속한다. 운동 선수의 경우 미국에서는 베ιβ 루스나 윌리 메이스가 가장 모범적인 야구 선수로, 마이클 조던은 가장 모범적인 농구 선수로, 그리고 타이거 우즈는 가장 모범적인 골프 선수로 꼽힌다. 가수로 치자면 마이클 잭슨이 모범이요, 영화 감독으로 치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모범이다. 또한 빌 게이츠는 컴퓨터 분야의 황제로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이창호나 조훈현 하면 가장 모범적인 바둑 기사들이고, 손기정이나 황영조는 가장 모범적인 남성 마라톤 선수며, 박세리는 가장 모범적인 여성 프로 골프 선수다. ‘혼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한글과컴퓨터사의 이찬진을 ‘한국의 빌 게이츠’라고 부르는 것도 모범적인 실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생성원’이란 작은 하위 범주가 범주 전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가령 자연수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조합하고 배열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0부터 9까지의 숫자는 자연수라는 범주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이 된다. 한편 ‘하위 모델’이란 모델의 하위 개념이 범주로 쓰이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자연수의 범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하위 모델은 10의 거듭승, 그러니까 $10 \cdot 100 \cdot 1000$ 등이다. 우리는 흔히 이 하위 모델을 이용하여 수의 상대적 크기를 이해한다. “100은 거의 98에 가깝다”라는 진술보다는 “98은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진술이 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하위 모델의 구성원은 인지심리학자 엘러너 로쉬가 ‘인지의 표준점’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이 인지의 표준점은 수를 계산하거나 크기를 판단할 때 특히 큰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두드러진 사례’란 눈에 띄는 만큼 현저한 실례를 말한다. 우리는 범주를 이해할 때 흔히 두드러진 실례를 사용하게 마련이다. 가령 친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채식주의자라면, 그 친구로부터 얻은 지식을 토대로 다른 채식주의자들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친구를 통하여 채식주의자의 범주 전체를 환유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레이코프의 뒤를 이어 환유를 좀더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는 데 인지언어학자 로널드 랭에커가 끼친 영향은 무척 크다. 레이코프가 주로 환유 모델의 범주를 찾아내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면, 랭에커는 좀더 인지적 관점에서 환유가 생겨나는 과정에 관심을 쏟는다. 레이코프의 이론이 한 특징이 사람이나 사물 전체를 나타내는 확대 지칭적 환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랭에커의 이론은 전체가 부분을 나타내는 축소 지칭적 환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환유가 일어나는 과정을 좀더 새롭게 설명하기 위하여 랭에커는 ‘활성역’과 ‘윤곽’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다. 활성역이란 특정한 관계에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역할을 맡는 부분을 말한다. 윤곽이란 인지 영역의 집합체라고 할 바탕 안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하부 구조를 가리킨다. 가령 “개가 고양이를 물었다”라는 문장에서 개의 이빨이 활성역이 된다.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특정한 행위에는 턱이나 근육 또는 신경계 따위도 관련되지만 특히 이빨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직접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한편 이 문장에서 윤곽은 개라는 동물의 몸 전체다. 말하자면 윤곽 속에 어렵פות하게 숨어 있는 의미가 특정한 상황에서 ‘활성화’되면서 의미가 생겨난다. 랭에커에 따르면 활성역과 윤곽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바로 환유가 일어난다.¹²⁾

12) 이 점에 대해서는 Ronald Langacker,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이 점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데이비드는 깜박거렸다”에서 깜박거린 것은 데이비드의 몸 전체가 아니고 ‘그의 눈까풀’일 뿐이다. 여기에서 활성역은 눈까풀이지만 윤곽은 사람 전체이므로 활성역이 윤곽의 하위 부분이다. 또한 “로저는 휘파람을 불었다”에서도 활성역은 로저의 허파와 구강이지만 윤곽은 로저의 몸 전체이다. “나는 고양이 냄새를 맡는다”에서도 윤곽은 고양이 전체이지만 활성역은 고양이의 배설물이다. 이 밖에도 “그는 손에 도끼를 들고 있다”라든지, “그는 사과를 먹었다”라든지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앞 문장에서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도끼 그 자체가 아니라 도끼의 일부인 도끼 자루다. 뒷문장에서도 사과를 먹은 것은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의 손·입·이·혀·식도 따위다. 또한 그는 사과를 통째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사과 가운데 일부, 즉 사과의 씨와 그 심을 뺀 나머지 과육만을 먹는다.

그렇다고 활성역이 늘 윤곽의 하위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활성역이 지시된 개체와 다른 방법으로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피아노를 들었다”에서도 그녀가 들은 것은 피아노가 아니라 ‘피아노가 내는 소리’다. 마찬가지로 “나는 전화번호부에 들어 있다”에서도 전화번호부에 들어 있는 것은 화자가 아니라 ‘화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이다. 여기에서 피아노 소리와 화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는 활성역에 해당하고, ‘피아노’와 ‘전화번호부’는 윤곽에 해당한다.

변형 문법 체계를 세운 미국의 언어학자 촘스키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낱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의미 때문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그 책은 무게가 5파운드 나간다”라는 문장과 “그 책은 급히 서둘러서 썼다”라는 문장에서 ‘책’이라는 말은 각각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앞 문장에서 책이 물리적인 구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뒷문

Grammar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1), pp. 189~92를 보라.

장에서는 내용을 가리키는 추상적 의미에 무게를 신는다. 만약 “이 책은 10달러다”라고 한다면, ‘책’이라는 말은 바로 무게도 아니고 내용도 아닌 값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더 들 수 있다.

언어학자들은 그 동안 막연한 단계에 있던 은유와 환유에 굳건한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었다. 은유와 환유와 관련하여 상식적이고 경험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실을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그들은 단순한 언어 현상의 차원을 넘어 좀더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이 두 비유의 개념적 특성을 좀더 뚜렷이 밝혀내었다. 특히 은유와 환유를 단순히 문학 작품에서 쓰는 수사적 장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좀더 범위를 넓혀 인간의 인지 작용의 관점에서 과학한 점은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의 작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은유와 환유를 분석하는 그들의 입장은 조금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은유나 환유가 아닌 말은 아마 하나도 없을 듯하다. 곡식을 뿔는 쇠 절구를 가지고 옷을 꿰매는 바늘로 사용할 수 없듯이 비유에 대한 개념이 너무 크면 그것을 설명하는 데 별다른 쓸모가 없게 마련이다. 그들이 다루는 은유와 환유는 거의 대개가 ‘죽은’ 비유에 속한다. 물론 ‘죽은’ 비유라고 하여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며, 엄밀한 의미에서 죽은 비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써온 탓에 칼날처럼 날카롭던 비유성이 무디어졌을 따름이다. 지금도 못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비유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문학가들이 흔히 작품에서 구사하는 좀더 살아 숨쉬는 은유와 환유에 눈을 돌린다면 아마 그 이론은 훨씬 더 빛을 발할 것이다. 비유는 언어의 성격과 본질을 밝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능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이다.